

# 하반기 착공... 2021년 초 1000명 채용... 2021년 하반기 양산



이홍섭 광주시장이 23일 시청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자동차회사 명칭에 대해 이 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빛그린모터스 등 우수한 이름이 공모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 광주현대차 합작법인 7월 설립

광주형일자리(노사상생형) 첫 적용 모델인 광주시·현대차그룹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상법상 회사) 설립 일정이 7월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합작법인 설립은 공 회사 설립으로, 내달 중 법인 설립과 동시에 회사 조직과 사업 내용 등이 확정되면 사업이 본격도에 올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월 회사 설립, 하반기 공장 착공=광주시는 완성차공장을 운영할 합작법인(상법상 회사) 설립 시기를 7월로 계획하고 있다. (재)그린카진흥원을 통한 광주시 우회 투자 방안과 근거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투자금 조달도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어 7월에는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법인 설립에 앞서 6월 중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기업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함께 한다. 법인 설립 전 7월 중 주주간 협약체결이 예정돼 있다. 주주간 협약체결은 주주총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법인 설립 전 회사의 거의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주주다. 주주간 주식 비율이 확정되고, 완성차 법인 명칭, 대표이사 등이 결정된다. 소액 투자자도 희망할 경우 참석 가능하나, 투자금액만큼의 발언권이 부여된 탓에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한계가 있다.

주주간 협약 체결 이후 발기인 총회를 거쳐 법인이 설립된다.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10만대 생산이라는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연다는

## 10만대 생산라인 갖춰 국내 최초 소형 SUV 생산 제3업체 위탁물량 생산도 가능... 꾸준한 판매가 관건

계 광주시 구상이다. ◇2021년 초 1000명 채용... 꾸준한 판매가 관건=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완성차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노동자들은 2021년 초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후 교육 훈련을 거쳐 하반기 자동차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게 광주시 계획이다.

1000명 가운데 700명은 생산직, 나머지 300명은 사무직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반 완성차회사와 달리, 제품 개발과 판매는 현대차가 맡게 되므로 사무직원을 최대한 슬림화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설립과 공장 건설, 직원 선발 이후 자동차 양산에 들어가면 관건은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작법인 완성차공장이 생산할 최초 차종은 현대차가 개발한 소형SUV(1000cc) 미만의 차종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1000명의 정규직 사원과 부품회사 등 협력업체가 꾸준히 일을 하려면 광주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 중요하다. 현대차가 시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차량 생산을 위탁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으면 꾸준히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장에 일감이 없어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광주시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는 것도 여기에 있다.

특히 시인 협력을 들여 만들 합작법인이 자체 기술개발 부서와 판매망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차 노사에 끼여 '일감이 떨어진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완성차공장이 만드는 현대차 위탁물량을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1월 말 협약에서 해외 완성차 법인 등 제 3자 위탁물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아닌 제 3업체 위탁물량 생산도 합작법인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 수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완성차공장과 광주형일자리사업은=광주시와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은 투자금 5754억원으로 광주 빛그린산단 내 19만8000평 부지에 완성차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투자금액은 회사 자기자본금 2300억원에, 외부 차입금 3454억원 등 5754억원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금 가운데 광주시 우회 투자금 483억원(21%)과 현대차 투자금 437억원(19%)을 제외한 60%는 완성차 협력사와 지역 중견기업 등이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구성된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그 첫 적용 모델이 광주시와 현대차 합작법인을 통한 자동차 양산이다. 노동자 임금은 3500만원 수준이나 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주거와 보육, 의료 등 사회적 복지 뒷받침해 결과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와 삶의 질에서 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좁게는 광주에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것이지만, 범위를 넓히면 해외로 간다. 제조사들의 국내 유턴을 불러올 획기적 발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北·美 정상 소통... 다시 도는 한반도 비핵화 시계

### 미중·한중·한미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 직접 의견교환 북미대화 재개 좋은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답신' 성격의 친서를 보내면서 멈춰있던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막을 내리고 나서 각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신한 적은 있어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받고 나서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만족을 표했으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를 받은 시점과 친서에 담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김 위원장이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

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고 매우 멋진 친서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가 암초를 만날 때마다 친서를 보내 분위기를 반전시키곤 했다. 두 차례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친서 외교'를 통해 난관을 넘어섰던 만큼 이번 친서 교환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외교고수들은 "북미 정상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양측의 남다른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북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잇따르는 미중·한중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21일 방북해 평양에서 개최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오사카에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중앙(CC)TV가 보도한 가운데 시 주석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북한의 입장을 한미 정상에게 알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 만큼 북한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한미 정상의 메시지를 보고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요청에 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며칠 앞두고 한국을 찾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추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오면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하겠지만, 북측 반응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오면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북측과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7월 초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 가늠 첫 무대

### 김상조 정책실장 "정책 일관성 유지·우선순위는 조정" 이호승 경제수석 "내수 활력 높이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청와대 정책 사령탑을 전격 교체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단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새 정책사령탑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책사령탑의 동시 교체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므로, 이호승 경제수석은 일자리

기획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으로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임명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면서도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약속했다. 이 경제수석은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면서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해야



김상조 실장 (왼쪽)과 이호승 수석 (오른쪽)은 이날 임명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면서도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약속했다. 이 경제수석은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면서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해야"라는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새 정책사령탑의 정책 기조는 내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2017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초 수상!

Costa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시아  
매일매일 새로운 4개국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 한/중/일/러 4개국의 아침을 깨우다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인천/속초/부산 왕복수송

**10/8 인천항 출항** 인천항 · 상해 · 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톡 · 속초항

**10/15 속초항 출항** 속초항 · 블라디보스톡 · 사카미나토 · 부산항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내측 1,980,000원 ~ 발코니 2,680,000원 ~ 오선부 2,280,000원 ~ 스위트 3,480,000원 ~

**한/러/일 특별 전세선 6일**  
내측 1,780,000원 ~ 발코니 2,480,000원 ~ 오선부 2,080,000원 ~ 스위트 3,280,000원 ~

**조기예약 이벤트**  
**30만원 할인 + 선실 우선배정**  
[7월 19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 예약 최대 10만원 추가할인  
8명 이상 3인실, 14명 이상 5인실, 20명 이상 10인실 할인

3/4인실 할인  
3/4인실 이용시 3/4인실 고액 상품가

**2018 인기크루즈 BEST 3**

선박수 20만인원 한/일 크루즈 5/6일  
1,090,000원부터 +4877.5 선석관광 포함  
▶7/3,8,12,26 ~ 매주 월·수·금요일 출발  
●새롭게 단장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탑승 ●부산 출/도착

베스트셀러 알래스카 정통 빙하크루즈 6/10일  
3,700,800원부터 +48201.5 선석관광 포함  
6/7, 14 이후 매월확정. 매주 금요일 출발  
●루비 프린세스호 ●프리미엄 크루즈 승선 및 알래스카산 신선식

조기예약 최대 3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0,000원부터 +170/180유로 선석관광 포함 ●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6/21 ~ 매주 금요일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6/28 ~ 매주 금요일 출발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임금호텔 숙박

가려워야만 크루즈 선실로 및 항구세, 식재료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 ●여행유리 ●여행자재 ●항수권료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적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적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경비는 선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적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적관광 미 선적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금에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일일여행금 제47회서울시 중구구세도 140 대대관광개발주) ●일일여행금 영리보조금 10억원 기금 ●기해여행 실시에 따른 보조금 50억원 기금 ●여행관리센터: 1588-8882 ●여행출발지: 부산/속초/호주 ●호주출발 10일 ●크루즈 2인 1실 사립부부실 2명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서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국권, 숙박권 등은 여행금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